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3년도 제22호

체육시민연대칼럼

정우림 선수를 기억하며 : 신화를 만드는 스포츠에서 교육적 성장의 장으로

2023 FIFA U-20 월드컵

끝내 울먹인 김은중 감독 “국민들 관심無, 선수들 인정받지 못해 마음 아팠다”

전상일 파이낸셜뉴스기자

2023 월드컵베이스볼클래식(WBC)

‘눈치는 결국 거짓말이었나...’ WBC 대표팀 음주 파문, 왜 팬들은 분노하는가

김우종 스타뉴스기자

전 이종격투기선수, 징역형선고

초크 걸어 기절시켰다... 전 격투기 선수 장악한 ‘공포의 구치소’

정시내 중앙일보기자

제58회 강원도민체육대회

남자로 4관왕 했던 대회, 성전환 후 여성으로 출전... 또 1위 했다

김성희 머니투데이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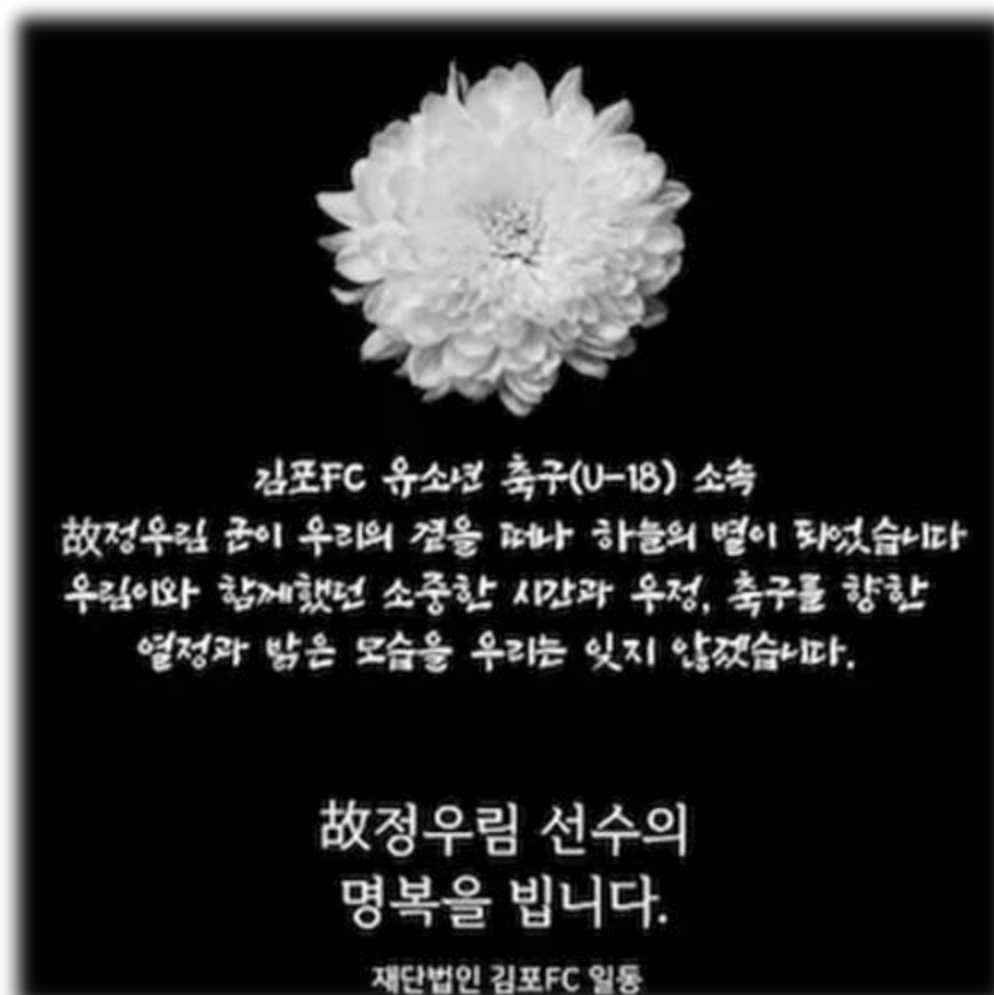


정우림 선수를 기억하며 : 신화를 만드는 스포츠에서 교육적 성장의 장으로

6월 5일, 아르헨티나의 산티아고델 에스테로에서 열린 2023 국제축구연맹(FIFA) U20(20세 이하) 월드컵 4강 신화에 대한 언론 보도가 넘쳐난다. 이번 대회에서 4강에 오른 것이 값진 이유는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 대해 팬들과 전문가들의 기대가 작았기 때문이다. 과거 U20 대회에서는 이승우(수원 FC), 이강인(마요르카)과 같은 스타 선수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두드러지는 선수가 없다는 것이다. 무관심과 우려와는 달리 2회 연속 4강이라는 좋은 성과를 만들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의 젊은 선수들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낱알의 경기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 인간의 삶으로 연결되는 접점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어린 학생선수 시절부터 촘촘하게 인권의 안전망을 유지하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긴 호흡과 넓은 안목의 '교육적 관점'으로 토대를 다져야 한다. 우리나라 축구의 화려한 이면에는 2022년 4월, 하늘의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 팀 정우림 선수의 사건에도 주목하고 귀 기울여야 한다. 2023년 5월 11일 정선수의 아버지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진행된 심문 기일에 참석해서 "축구계 인권 침해·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어린 학생들이 자기를 돌봐줄 어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어린 학생선수가 고통스런 호흡을 멈추었지만, 체육계의 인권과 훈련 환경을 점검하고 재구성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조용환은 교육이 비록 막연하고 고단할지라도 매번 '교육인가' 문답하고, '교육다운가' 대화해야함을 강조한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 학생선수들의 훈련과정이 교육다운가라는 질문에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그리고 답하고 또 답해야 한다. 특정 개인이 묻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통렬하게 반성하는 문답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스포츠는 믿을 수 없는 신화를 창조하는 결과보다 학생선수들의 안전한 교육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교육적 성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다. 故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김포FC 유소년 축구(U-18) 소속
故정우림 군이 우리의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우림이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과 우정, 축구를 향한
열정과 밝은 모습을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故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재단법인 김포FC 일동

2023.06.06

신일본스포츠연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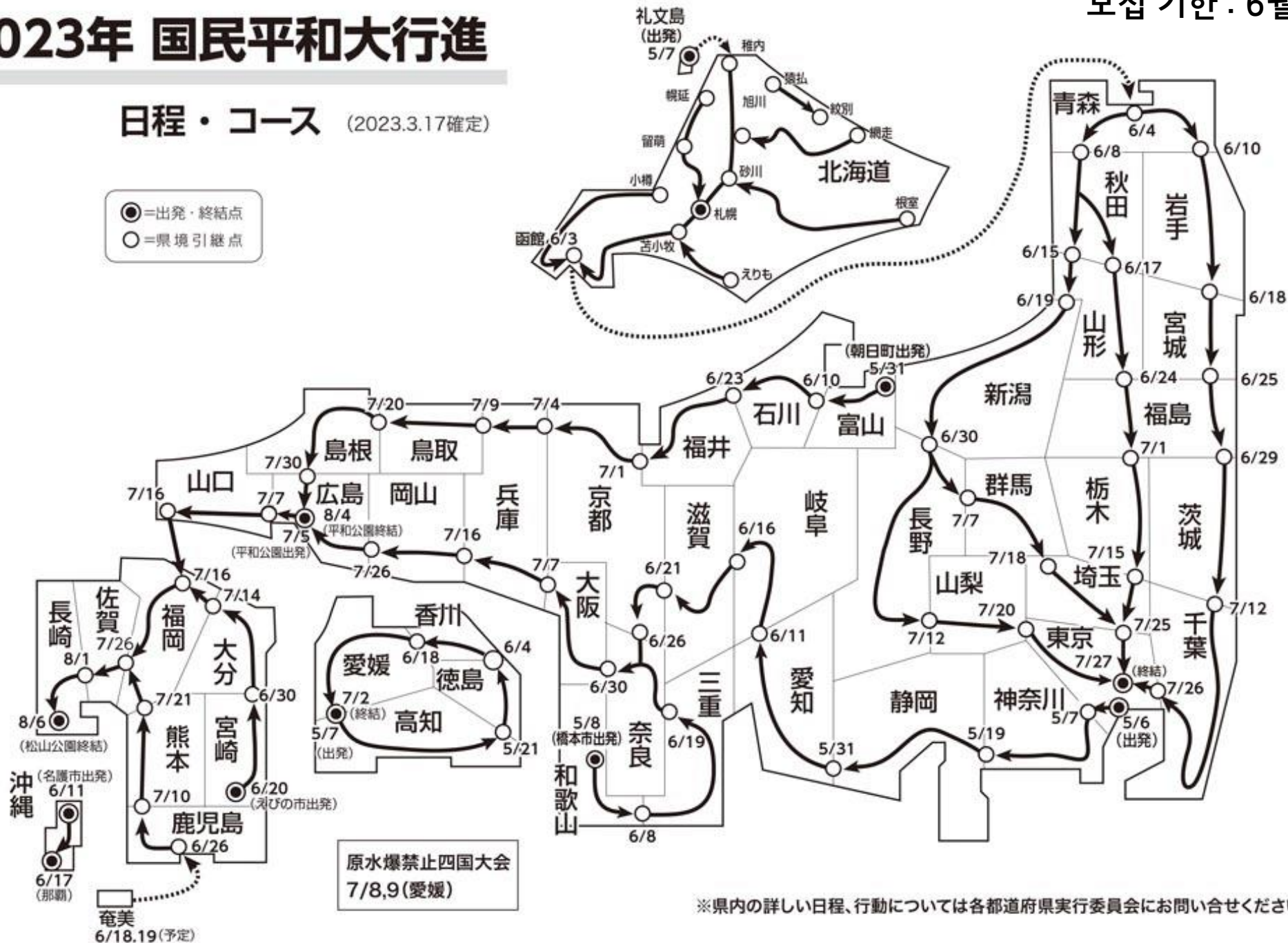
평화행진마라톤 참가자 모집

모집 기한 : 6월 13일까지

2023年 国民平和行進

日程・コース (2023.3.17確定)

●=出発・終結点
○=県境引継点



※県内の詳しい日程、行動については各都道府県実行委員会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일정(안)

- 7월 12일(수) 평화 대행진 치바(千葉) 현 코스 출발
- 7월 26일(수) 치바 코스 종점. 출발 날부터 종점 날까지 도중에서 참가
- 7월 26일(수) 평화 대행진 도쿄 코스 출발
- 7월 27일(목) 도쿄 코스 종점.
- *** 여기까지는 평화 행진 실행 위원회가 비용 부담

- 7월 28일(금), 29(토) 자유시간, 가나가와 현 워킹 교류, 가나가와 현 숙박
- 7월 30일(일) 매달 가와사키 마라톤 참가(구경), 교류
- *** 여기까지는 신일본 스포츠 연맹 가나가와 현 연맹이 비용 부담

- 7월 31일(월) 신칸센으로 히로시마로 이동
- 8월 1일(화) 평화 대행진 히로시마 코스 도중에서 참가
- 8월 4일(금) 행진 종결 (히로시마 평화 공원), 오후 국제 회의
- *** 여기까지는 평화 행진 실행 위원회가 비용 부담

- 8월 5일(토), 6일(일) 평화 집회 참석 후 귀국
- *** 여기까지는 신일본 스포츠 연맹 전국 연맹이 비용 부담

1. 일본 체재 중의 교통, 숙박, 식사 등 비용은 일본 측에서 부담합니다. (개인적 비용 제외)
2. 평화 행진중 숙박 시설은 각 지방의 평화 행진 실행위원회가 확보합니다.
3. 일본에 체류 중 질병이나 부상을 당할 경우를 상정하여 사전에 본인 부담으로 여행 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합니다.

‘전체 일정 중 일부만 참여’ 도 조율 가능합니다.
 참여 희망자는 간단한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자유양식 A4 2매 이내)를
sports-cm@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내 울먹인 김은중 감독 “국민들 관심無, 선수들 인정받지 못해 마음 아팠다”

4강 대업을 일궈낸 김은중 U20 월드컵 한국대표팀 감독이 끝내 울먹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 했다.

한국은 5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FIFA U-20 월드컵 준준결승 나이지리아와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1-0으로 이겼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직전 대회인 2019년 폴란드 대회 준우승에 이어 2회 연속 4강에 진출했다. 이날 공격 점유율에서 32%-46%로 밀렸고 슈팅 수 역시 4-22로 절대 열세였지만, 딱 한 차례 기록한 유효슈팅이 득점으로 이어지며 승리를 따냈다.

경기 후 방송 인터뷰에 나선 김 감독은 극적인 승리에 감정이 벅차올랐는지 울먹이는 듯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다"라며 말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선수들이 잘 버텨줘서 좋은 결과를 냈다"며 "대단하다.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사실, 김은중호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성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편이 아니었다. 오히려 부담감만 가중되었다. 2019년 직후의 대회였기에, 계속 again 2019라는 캐치프라이즈만 주변을 맴돌았다.

부담은 있었지만, 2017년 이승우(수원FC), 2019년 이강인(마요르카)과 같은 특출난 스타급 선수가 없다 보니 주위 관심도 덜 했다. U-20 월드컵을 하는지도 모르는 국민들도 많았다.

그러나 김은중호는 1차전에서 만난 '우승 후보' 프랑스를 2-1로 꺾으며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조별리그 3경기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오롯이 '실력'으로 축구 팬들의 주목을 끌었다.

김 감독은 "사실 (우리 팀에 대한) 기대는 없었고 우려는 컸다"며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 (다들) 잘 모르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 부분이 많이 속상해했다"고 말했다. "나를 포함한 코칭스태프를 따라와 준 선수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며 "선수들이 잠재력이 있는데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게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손으로 잠재력을 끌어냈다. 대단하다"며 2회 연속 4강 진출의 공을 선수들에게 돌렸다.

김은중호의 4강 상대는 이탈리아로 정해졌다. 이탈리아와 준결승은 아르헨티나 라플라타에서 9일 오전 6시에 펼쳐진다.

‘눈치는 결국 거짓말이었나...’ WBC대표팀 음주 파문, 왜 팬들은 분노하는가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음주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결국 김광현(35·SSG 랜더스), 이용찬(34·NC 다이노스), 정철원(24·두산 베어스)이 음주 사실을 시인하고 팬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김광현은 지난 1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홈 경기를 앞두고, 이용찬과 정철원은 같은 날 창원NC파크에서 열릴 예정(우천으로 취소)이었던 두산 베어스-NC 다이노스전을 앞두고 최근 파문을 일으킨 음주 사건에 대해 구단을 통해 사과했다.

WBC 대회가 끝난 지 약 2개월이 지난 가운데, 뒤늦게 일부 WBC 대표팀 선수들의 음주 논란이 불거졌다. 한 매체는 지난달 30일 "한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토대로 추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각 구단에서 선발 에이스나 불펜 에이스로 활약하는 정상급 투수 3명이 지난 3월 8일 밤부터 11일 새벽까지 도쿄 아카사카에 위치한 한 술집에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A 구단의 간판 선발 투수 B씨가 C 구단의 우완 불펜 투수 D씨를 데리고 3월 8일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셨다. 10일 밤에도 해당 술집을 찾아 다음 날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E 구단의 우완 마무리 투수 F씨는 3월 9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해당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보도 이후 KBO와 각 구단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전날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30일 경기 도중, 혹은 경기가 끝난 뒤부터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그 정도로 사안이 컸다. KBO는 31일 오전 "각 선수에게 경위서를 제출받고 그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뒤 국가대표 운영 규정에 어긋남이 있다면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KBO는 금일 3개 팀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3명의 선수는 대회 기간 경기가 있는 전날 밤, 스낵바에 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오사카에서 도쿄로 이동한 날(3월 7일)과 휴식일 전날(3월 10일)에 해당 업소에 출입한 사실이 있음을 밝혔다"고 했다.

KBO가 선수 3명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미 야구계에서는 특정 선수들의 이름이 언급된 상황이었다. 결국 김광현과 이용찬, 정철원이 직접 팬들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음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광현은 "WBC 대회 기간에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사과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자 미디어와 팬들 앞에 서게 됐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가대표 대회 기간에 생각 없이 행동했다는 점에 대해 야구를 사랑하는 모든 팬분, 미디어 및 야구 선후배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팀의 베테랑으로서 생각이 아주 짧았고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한 점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KBO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여 다시는 야구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을 실망하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야구를 좋아하고 사랑해주시는 팬들과 미디어, 그리고 야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용찬도 "먼저 국가대표로서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팬 분들과 모든 관계자분들께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 이번 대회 기간 중 휴식일 전날(3월 10일 일본전 직후) 지인과 함께 도쿄 소재 한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인근 주점으로 이동해 2시간가량 머무른 후 곧바로 숙소로 귀가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제대회 기간 중 음주를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KBO에서 이뤄지는 절차에 성실히 응하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앞으로 프로선수로서 더욱 신중히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광현과 함께 술자리를 했던 정철원도 고개를 숙였다. 정철원은 "WBC 대회 중인 3월 10일 일본전이 끝나고 (김광현 형과) 술자리를 가졌다. 대표팀의 좋지 않은 성적에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말았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경솔한 행동이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저 자신이 부끄럽다. 태극마크라는 영광스러운 훈장을 받았던 만큼 더욱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했지만, 팬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렸다. KBO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떠한 처벌과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다만 정철원은 "일본전이 끝나고 술을 마신 건 사실이지만, 결코 여성은 근처에 있지 않았다"면서 접대부와 동석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일단 이름이 오르내렸던 3명이 직접 팬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했다. SSG는 당초 1일 삼성전에 김광현을 선발로 내세울 예정이었으나, 해당 사건이 불거지자 백승건으로 선발 투수를 교체했다. 이어 SSG 구단은 김광현을 1군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반면 NC와 두산은 이용찬과 정철원을 1군 엔트리에서 말소하지 않았다.

WBC 대회 기간 대표팀 선수들이 부담감에 짓눌려 경기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 야구의 흥행을 위해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나섰기에, 당연히 부담감도 클 수밖에 없었던 대표팀 선수들이었다.

반면 일본 WBC 대표팀은 달랐다. 그들은 대회를 며칠 앞두고 회식까지 하면서 선수단 단합을 도모했다. 당시 다르빗슈 유와 오타니 쇼헤이 등은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오사카에 위치한 한 식당에 모여 회식한 모습을 공개했다. 오타니는 "팬 여러분, 함께 힘냅시다"라고 적으며 많은 일본 팬들의 응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광현도 대회 기간 도중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김광현은 8일 오전 도쿄돔에서 진행된 훈련을 앞두고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일본 대표팀의 회식 이야기에 대해 "회식했나요"라고 반문한 뒤 "저희는 좋은 성적을 내야 회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경기 전에 하면 말이 또 나올 수 있다. 늘 우리는 조심스럽다. 눈치 보는 게 일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렇게 말했던 김광현은 이 발언을 하기 전날인 7일 술자리에 참석했던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영광의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던 그의 말과 행동은 달랐고, 결국 팬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일본처럼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회식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또 김광현이 고등학교 후배 정철원에게 밥을 사고 싶었다면 굳이 스낵바가 아니라,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같이해도 충분한 일이었다.

김하성 역시 당시 대회를 마친 뒤 일본의 회식 자리에 대한 질문에 "저도 다르빗슈의 SNS를 보면서 알게 됐다. 저희(한국)는 그런 게 없었다. 저도 3년 만에 대표팀에 왔지만, 밖에 나가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었다. 결국 그런 분위기도, 저희 선수들의 성적이 안 좋아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제 공은 다시 KBO로 넘어갔다. KBO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집 기간 중 음주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았다. 다만 소집 기간 중 국가 대표로서 포괄적으로 명예와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KBO 규약 국가대표 운영 의무 규정의 위반 소지는 있다. KBO 규약 국가대표 운영 규정 제13조 [징계] 항(3. 다)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명시돼 있다.

무조건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그저 무책임한 방기가 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KBO와 구단 차원에서 더욱 철저하게 교육하고 지도해야 한다. 올해 스포츠윤리센터가 각 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최근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 KIA 타이거즈 구단 1, 2군 선수단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 및 윤리, 성폭력 및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런 행위는 선수 개인 및 리그 전체를 넘어 스포츠 전반을 뒤흔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사실 과거에도 선수들의 계속된 일탈에 KBO와 각 구단은 매번 인성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 일각에서는 징계 수위를 더욱 강화하자는 이야기를 한다. 김인식 전 감독은 2년 전, 2020 도쿄올림픽 대회가 끝난 뒤 스타뉴스와 인터뷰에서 "징계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선수들을 가르칠 때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 요즘은 선수들이 너무 눈치를 안 보는 것 같다. 선수들 스스로 '내가 이런 짓을 하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선 안에서 산다는 마음가짐을 늘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한 바 있다.

초크 걸어 기절시켰다... 전 격투기 선수 장악한 '공포의 구치소'

구치소에서 재소자들을 괴롭힌 전 이종격투기 선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A(33)씨는 같은 수용실을 쓰는 다른 재소자들에게 두려운 존재였다.

같은 해 3월 A씨는 재미로 동료 재소자인 B(29)씨와 C(25)씨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시켰다.

이들은 양손으로 귀를 잡고 엎드린 상태에서 “귀뚫”이라고 소리치고, 흥기로 찌르는 듯이 손을 앞으로 뻗으며 “강도”라고 외쳐야 했다. 또 A씨가 시켜 어쩔 수 없이 바닥에 엎드린 채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자세도 잡았다.

이들은 “하기 싫다”라고도 말했지만 때릴 듯 겁을 주는 A씨가 무서워 2개월 넘게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 재소자들은 A씨의 명령에 따라 서로 복부를 때리기도 했고, A씨가 ‘KCC’라는 이름으로 만든 운동클럽에 가입해 강제로 운동도 해야 했다.

A씨는 “운동을 그만하고 싶다”고 B씨가 부탁하자 “다른 재소자들한테 복부 10대를 맞고 탈퇴하라”고 으박질렀다.

구치소에서 B씨는 2개월 동안 A씨의 전용 안마사이기도 했다. “야. 여기 와서 마사지 좀 해봐”라는 말이 떨어지면 20분 동안 A씨 몸 구석구석을 주물렀다. 평소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던 그는 “앞으로 화장실 가면 죽어버린다. 급하면 바지에 싸라”는 구박도 들었다. 또 A씨는 B씨와 C씨를 불러 “기분 좋게 기절시켜 주겠다”며 다리로 목을 졸랐다. “뇌에 피가 안 통할 것 같다”며 거절했지만 소용없었다. 실제로 기절한 피해자들은 격투기 기술인 이른바 ‘초크’를 10차례나 견뎌야 했다.

검찰은 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고,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B씨는 인천구치소에서 겪은 악몽 같은 일을 다시 떠올렸다. 그는 법정에서 “A씨가 무서워 (수치스러운 행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며 “안마도 하기 싫었지만 맞을까 봐 두려워 요구대로 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C씨도 “인천구치소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 고립된 상태였다”며 “A씨는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재소자에게 때리게 하는 방법으로 괴롭혔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엎드리게 해서 시킨 행동은 장난이었고 서로 때리게 한 적은 없다”며 “안마도 B씨가 스스로 했고, 기절시킨 적은 있지만 피해자들이 원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은 A씨가 범행할 당시 상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용돼 반성하며 생활해야 하는데도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과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자로 4관왕 했던 대회, 성전환 후 여성으로 출전... 또 1위 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이클 선수가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이클 선수 나화린씨(37)는 지난 3일 강원 양양시에서 열린 제58회 강원도민체육대회에 출전, 여자일반부 경륜에서 다른 2명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국내 대회에 성전환 선수가 출전한 건 처음이다. 그의 출전이 화제가 되면서 나씨가 모습을 드러내 몸을 풀 때부터 시선이 쏠렸다. 그는 경기 초반부터 선두로 나서 경기를 주도했다. 철원군 자전거연맹 소속 선수들은 '화린이 파이팅' '잘했다' 등 응원을 보냈다.

그는 경기 후 다른 여성선수 2명에게 다가가 음료수를 건넸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제가 아무래도 우월한 입장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 등수를 하나씩 뺐은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해 죄송한 마음을 담아 사과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틀간 남은 경기도 최선을 다해 임해 1위를 놓치지 않고 싶다"고 말했다. 나씨는 "오늘 경기를 처음 뛰어본 결과 남자, 여자뿐 아니라 성전환자를 위한 제3의 경기를 신설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 대회 사이클 여성 부문 3종목에 출전한다. 4일엔 스크래치, 5일엔 개인도로 부문에 각각 나선다.

뉴스1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성별 정정허가를 받아 법적으로도 여성이 됐다. 주민번호 뒷자리 앞번호를 '1'에서 '2'로 바꾸고 이름은 황규복에서 나화린으로 개명했다.

그는 2012년 강원도민체전 남자 사이클에 출전해 4관왕을 차지했다. 성전환 이후에도 키 180cm, 몸무게 72kg, 골격근량 32.7kg으로 일반적인 여성 선수보다 체격이 크고 근육량이 많다.

주간 스포츠 소식

인공지능에 물어보니...역대 최고 여자 스포츠 선수는 윌리엄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604016500007?input=1195m>

스포츠윤리센터, KIA 퓨처스팀과 스포츠 윤리 교육 진행

<http://www.stoo.com/article.php?aid=87382659010>

김포시청 직장운동부 대상... “폭력 예방 및 스포츠 인권 교육”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30530/119545550/1>

서울 초·중·고 대상 '2023 스포츠 창작 아이디어 공모전' 열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3114281028074>

리틀야구 '행정 전문가'→감독 변신, '화성 아톰즈' 리틀야구단 창단

<https://www.mhns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092>

제2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이달 9~11일 익산서 개최

<https://www.ajunews.com/view/20230602164445184>

한국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 남자부 4연패...MVP 박태준

<https://www.yna.co.kr/view/AKR20230605006500007?input=1195m>

LPGA 선수 꿈 키울 '걸스골프' 국내 상륙...오는 10일 정식 론칭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318224?ref=naver>

국가대표선수촌 '전천후 육상훈련장' 생겼다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306050083>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